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

김경민*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첫 번째 경험: 육체의 발견과 개인의 자각
- III. 두 번째 경험: 소유권 개념의 이해와 법률적 소송
- IV. '여성'의 한계를 벗어난 근대인 나혜석

【국문초록】

나혜석은 서구의 근대적 미술교육과 화가로서의 경험 덕분에 '육체'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근대적 개념과 사상에 대한 이러한 자각이 단지 관념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육체는 각각의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기에 그 육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사용하여 획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그 개인에게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신체 혹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한다. 스캔들 상대였던 최린을 상대로 정조유린의 대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것이나, 이혼과정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혜석은 이혼이나 불륜스캔들과 같은 문제를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공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인받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한 나혜석을 근대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근대적 개인과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그녀의 삶 전체가 근대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이

*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교수

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나혜석, 근대적 개인, 미술 교육, 소송, 법률적 인간

I. 들어가며

근대적 주체의 상징으로서 신여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하다. 나혜석이나 김명순과 같은 대표적인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별 작가론뿐만 아니라 모던걸, 여학생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접근한 논의 역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¹⁾ 나혜석은 가장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그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어 있다. 나혜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페미니스트로서의 모습으로, 이들이 주로 분석했던 대상은 그녀의 대표작 『경희』를 비롯한 몇몇 문학작품과 수필, 산문, 인터뷰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나혜석이 파멸한 신여성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당시의 권력 지형을 꼽으며, 주체적 여성 섹슈얼리티를 위해 경제적 자립과 이념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했다고 분석한 정순진의 『여성이, 여성의 언어로 표현한 여성 섹슈얼리티』, 나혜석의 삶 전반을 들여다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녀의 근대적 자아관이 일관되지 못하고 하나의 언어 모순이거나 인식론적 곤경으로 비춰져왔다고 주장한 김은실의 『조선의 식민지

1) 신여성 혹은 신여성과 관련된 주요 담론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는가』, 생각의 나무, 2000, 수요+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 2005,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나혜석의 다양한 활동을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며, 교사와 화가로 또한 미술비평을 통해 서양화 기법과 미술 관련 지식을 번역하여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서구의 젠더의식과 규범을 국내에 소개하는 젠더 번역의 역할도 했다는 논의를 펼친 김운정의 「식민지 근대의 문화번역과 신여성:나혜석을 중심으로」, 나혜석의 매장은 당시의 남성중심적 지배 프로젝트의 하나였으며, 반대로 나혜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과정은 이러한 지배 프로젝트와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경합하는 담론의 장이었음을 분석한 조은의 「페미니스트로서 나혜석 읽기」 등을 꼽을 수 있다.²⁾

뿐만 아니라 화가로도 이름을 날린 그녀인 만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눈에 띈다. 미술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박영택의 「나혜석 작품연구: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을 중심으로」와 윤범모의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쟁점과 과제」, 김홍희의 「나혜석 미술작품에 나타난 양식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박영택은 나혜석의 미술작품 전반을 살펴보고 그녀가 일본식 인상주의와 프랑스 인상주의의 양 축을 왕래하면서 풍경화와 인물화가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최초의 여류서양화가임을 분명히 하지만 화가로서의 명성에 비해 작품세계가 미약한 편임을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윤범모는 나혜석의 미술세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며 이후 나혜석의 미술세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 진위문제 등 기초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김홍희는 나혜석의 페미니즘 사상이 그림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그 이유로 유채라는 생소한 매체 사용으로 인한 한계로 풍경화나 인물을

2) 이외에도 나혜석 관련 연구는 다른 신여성 작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특히 2012년부터 나혜석 학회가 중심이 되어 『나혜석 연구』라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벗어날 수 없었던 점과 서구에서도 페미니즘 미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처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그녀의 사상이나 철학과의 상관성 보다는 미술화풍이나 기법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유명한 화가이자 동시에 작가로서의 활동도 겸했던 나혜석이지만 그녀의 명성에 비해 미술과 문학의 상관성에 주목한 논의들은 많지 않다. 미술과 문학 양자를 모두 언급한 논의로는 서정자의 『나혜석의 문학과 미술 이어 읽기』와 송명희의 『나혜석의 미술과 문학의 상호텍스트성』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두 논문 모두 나혜석의 문학과 미술은 별개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나혜석의 여러 문학작품에 나타난 미술적 요소, 가령 색채묘사나 구도, 인상주의적 요소나 표현주의적 요소 등의 구체적인 화풍 등을 찾아 읽음으로써 문학과 미술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그녀가 일본에서 미술학교를 수학하고 이후 작가로서, 1세대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던 다소 특이한 경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문학과 미술을 함께 분석한 기존 논의들이 주로 화풍과 미술적 요소들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그녀가 서구식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았던 ‘경험’ 그 자체에 주목해보았다. 미술 교육을 받았던 이 경험 자체를 이후 펼쳐진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그녀의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본 연구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최린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요구다. 이 두 사건은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의 여러 행적 중에서도 단연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들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 즉 이 두 사건이 모두 법을 근거로 한 권리 주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서조차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나 당시 사회에서 불륜 사실의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알면서도 정조유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인 것은 분명 당시로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유학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삶 전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Ⅱ. 첫 번째 경험: 육체의 발견과 개인의 자각

<...> 초상화라는 예술형태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은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개별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개별화 작업에서 서구의 근대가 출발한다. 개별화라는 개인주의의 형성은 서구 근대사회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³⁾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육체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얼굴을 포함해 육체를 관찰함으로써 나와 타인이 서로 독립적이며 개성적인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를 통해서 서구 근대성의 흡수와 전환이 이뤄지고 근대성의 또 다른 특징인 개인화(individual)가 실현된다”⁴⁾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때 ‘육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대 서구의 미술이다.

나혜석은 1913년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해 4월에 일본의 여자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일본 최고의 전문미술교육기관이었던 도쿄미술학교

3) 주현진, 『이상 문학의 근대성-‘의학-육체-개인’』, 『한국사학연구』 23, 2008, p.384.

4) 위의 글, p.382.

가 여성의 입학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나혜석이 다닌 여자미술학교는 ‘여자’가 ‘미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그만큼 진보적인 활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나혜석의 전공은 ‘서양화와 고등사범과’였기에 그녀는 이곳에서 미술 실기에 관한 것뿐 아니라 윤리, 교육학 등도 함께 배웠다. 이 시절을 회상한 글에서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교육학 시험문제에 “페스타로치의 교육설, 장자크 루소의 자연교육설 및 에밀레 대한 비판 여하”⁵⁾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혜석이 루소와 페스타로치 등 근대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이곳에서의 학과 수업을 통해 처음 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혜석과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이어준 매개로는 학과 수업뿐 아니라 그녀가 다녔던 미술학교생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했던 여성지도 꼽을 수 있다. 나혜석이 유학을 했던 시기는 일본의 문화예술계에서 서구사상의 유입이 활발했던 시기로, 여성해방론과 같은 자유주의사상도 이 시기에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한다.⁶⁾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1911년 여성들에 의해 창간된 여성지 『세이토(靑鞆)』 역시 당시 일본 여성운동의 상징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잡지가 문학과 미술이라는 두 분야를 아우르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세이토』가 창간되기 이전에도 『명성』, 『스바루』, 『시라카바』 등 문학과 미술을 접목한 잡지들이 1910년을 전후

5) 나혜석, 『나의 도쿄여자미술학교 시대』,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491.

6) 예구사 미츠코는 『1910年代の日韓文學の交点』에서 나혜석이 유학한 시기 일본은 『시라카바』, 『세이토』 그리고 아나키즘 등 개인주의사상이 주류화 하는 교점이었으며 나혜석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무사노코지 사네아츠, 시가 나오야, 아리시마 다케오 등이 동인이었던 『시라카바』는 미술평론이나 서양미술에도 주력하여 다이쇼 중기에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이들의 자장에서 나혜석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미츠코의 주장이다. (서정자, 『나혜석의 문학과 미술 이어 읽기』, 윤범모 외,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p.211)

로 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학이 주를 이루는 잡지에 표지화를 그리는 역할로 화가들이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이후 미술사가나 화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전람회의 합평 등이 실리면서 미술가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⁷⁾ 이 잡지들은 단순히 미술과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구의 근대적 사상에 있다는 공통점을 띠고 있다. 『세이토』는 여기에 ‘여성운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 서구의 근대적 사상의 유입과 전파를 주도한 잡지들이 공통적으로 문학과 미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학과 미술이라는 두 분야와 근대적 사상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미술과 근대적 사상은 다소 낮은 조합으로 보이는데, 이 둘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나혜석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 단서를 찾기 전에 먼저 나혜석과 잡지 『세이토』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나혜석이 『세이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여러 정황들로 설명되는데, 가장 먼저 그녀가 『세이토』의 많은 필진들처럼 미술창작과 함께 문학에도 재능을 보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자미술학교 선배 세명이 세이토사에서 활동했으며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⁸⁾ 결정적으로 그녀가 쓴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에는 『세이토』의 동인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나는 아직 부인의 개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고(故)이며 또 자신의

7) 문정희, 「여자미술학교와 나혜석의 미술」, 윤범모 외, 앞의 책, p.55.

8) 이노우에 가즈에,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특색과 사회적 갈등」, 『나혜석 학술대회는 문집1』, 2002, p.71 참조.

이상은 비상한 고위(高位)에 존(存)함이고, 혁신(革新)으로 이상을 삼은 카츄샤, 이기(利己)로 이상을 삼은 막다, 진(眞)의 연애로 이상을 삼은 노라 부인, 종교적 평등주의로 이상을 삼은 스토우 부인, 천재적으로 이상을 삼은 라이쵸우 여사, 원만한 가정의 이상을 가진 요사노 여사, 제씨와 여(如)히 다방면의 이상으로 활동하는 부인이 현재에도 불소(不少)하다.⁹⁾

나혜석이 “천재적으로 이상을 삼”았다고 평가한 라이쵸(平塚明子)는 『세이토』의 발기인으로, “태초부터 여성은 태양이었다. 진정한 사람이었다”는 그녀의 말은 나혜석을 비롯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 라이쵸는 엘렌 케이(Ellen Key)의 『연애와 결혼』을 번역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글을 통해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서구의 여성해방론을 접할 수 있었다.¹⁰⁾ 나혜석이 『세이토』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은 그녀가 1921년 『매일신보』에 입센의 『인형의 집』을 연재했다는 사실이다. 나혜석은 삽화와 함께 직접 『인형의 집』을 번역하여 연재했는데, 이 역시 『세이토』 3호에 실린 『노라 합평호』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혜석이 이렇게 『세이토』로부터 페미니즘을 비롯한 서구의 근대적 사상에 대해 영향을 받고 이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받은 서구의 근대적 미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술교육과 화가로서의 경험이 근대적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육체’였다. 이 장의 첫 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 서구의 미술을 배웠던 경험은 그녀가 ‘육체’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9) 나혜석, 『이상적 부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183.

10) 라이쵸에 대한 설명은 문정희의 『여자미술학교와 나혜석의 미술:1910년대 유학기 예술사상과 창작태도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되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그녀가 쓴 글에는 당시 다른 이들의 글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가 특유의 관찰과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육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경희는 제 몸을 만져본다. 왼편 손목을 바른편 손으로, 바른편 손목을 왼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 몸... 이 몸을 어떻게 서야 할까? 이 몸을 어디로 향하여야 좋은가?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¹¹⁾

1918에 쓴 소설 『경희』의 한 장면으로, 부모님이 강요하는 혼인을 앞두고 고민하는 경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 길은 쌀이 공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뽀기도 쉬운 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보게 되”는 어려운 길이다. 이 양 갈래의 길 앞에 고민하던 경희가 하는 행동은 자신의 몸을 훑어보고 만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한참동안 “제 몸을 반성하던” 경희는 갑자기 자신의 “뽀뽀한 얼굴, 넓적한 입, 길쭉한 사지의 형상이 모두 스러지”는 듯한 경험 끝에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저것!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향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경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릿

11) 나혜석, 『경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99.

장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명주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어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경희는 벽에 걸린 체경에 제 몸을 비추어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끔찍여 본다. 팔도 들어보고 다리도 내어놓아 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 그러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다.¹²⁾

다른 동물, 다른 사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자각하는 장면이다. 이때도 그녀는 체경에 자신을 몸을 비춰보고 팔다리를 움직여본다. 그녀가 스스로를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신의 ‘육체’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다른 아닌 ‘육체’라는 물질에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명징한 지표임을 깨달은 것이다.

각각이 독립적이며 개성적인 형태를 지닌 ‘육체’의 개념을 전제로 다른 종,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라는 종 가운데서도 수많은 다른 ‘육체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즉 ‘개인’에 대한 자각으로도 이어진다.

과연 그렇다. 나 같은 것이 무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아 과연 사람 노릇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 이 사람이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끌리고 따라가고 고칠 수 없이 쇠약한 의지가 들어 앉았다. 이것이 사람인가. 이것을 가진 위인이 사람 노릇을 하잔 말인가.¹³⁾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흉내 내고 다른 사람의 의지와 명령대로 행동

12) 위의 글, p.102.

13) 위의 글, p.100.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람 노릇이 아니라는 소설 속 경희의 깨달음은 나혜석 또한 이미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별적 존재, 즉 ‘개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희』뿐 아니라 나혜석의 다른 글에서도 고유하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나’ 혹은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기생 강명화의 자살을 두고 쓴 글에서는 행복과 만족이 결코 타인을 통해서서는 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다른 글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행복과 만족은 결코 비아(非我)로서 구할 바가 아니요, 반드시 자기 내심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일신 일변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한 기생과 같은 감정 생활, 기본 생활자로서는 도저히 자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강씨의 급변 자살의 원인도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즉 개인적 생의 존엄과 그 생을 전개하여 갈 역량의 풍부한 것을 자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이상이요, 그 생의 전부를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가 행복이요, 만족인 것을 일찍이 자각하였던들...¹⁴⁾(밑줄 강조:필자)

우리는 사랑으로 삶으로써 비로소 이 근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먼저 여자 자신이 자기 일신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자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과로한 것을 가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동시에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여자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에게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즉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아니, 억제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숨 소리를 들어 보시오. ‘나도 한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이상스럽게 전신에 흐르리다.¹⁵⁾(밑줄 강조:필자)

14) 나혜석,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252.

모든 인간은 생의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그 생을 전개해갈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혜석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페미니스트로서의 모습 또한 근저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즉 ‘개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우리는 어서 속히 내 한 몸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겠고, 동시에 내 몸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껴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되어야 하겠다. 내 몸이 귀엽거늘 어찌 남의 손에만 맡겨둘 수 있겠으며, 내 몸이 사랑스럽거늘 어찌 반드시 한 있는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랴! 내 몸이 아깝거늘 어찌 남의 일만 죽도록 보이주고 남을 편하게 해 주기만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으랴! 자기를 잊지 않고서야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요, 자기를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여자의 해방, 자유, 평등이 다 있는 것이요, 연애의 철저가 있을 것이며 생활개선의 기초가 잡힐 것이며 경제상 독립의 마음이 날 것이다.¹⁶⁾(밑줄 강조:필자)

“<...>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여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하였다. <...> 사람이 번 째, 사람이 먹고 남은 밥찌꺼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 주변 좋다는 금수와 다른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는다. 이것이 조금도 모순이 없는 사람과 금수와의 차별이다. 조금도 의심없는 진리이다.¹⁷⁾(밑줄 강조:필자)

15) 나혜석, 『생활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275.

16) 나혜석, 『나를 잊지 않는 행복』,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264.

‘자기’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여성 해방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자기’가 먼저 정립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나혜석의 생각은 단지 이기적인 자기애의 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 즉,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⁷⁾

『경희』에서 조상이나 남편이 벌여놓은 밥을 그대로 얻어먹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고 사람이라면 무릇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조금도 의심 없는 진리라고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성으로서의 권리나 평등을 단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여성들이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여성들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혜석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다.

여성문제만큼이나 그녀가 관심을 가졌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인을 강조하는 그녀의 사상은 그대로 이어진다.

남녀간에 성년이 되면 자기 의사를 당당히 주창하고 또 남자는 돈벌 줄

17) 나혜석, 『경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p.102-103.

18)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나(자기)’에 대한 실존적 자의식을 드러내는 나혜석의 생각은 그녀의 글과 언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류부인과 산아제한’을 주제로 한 『삼천리』의 설문조사에서 나혜석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내 몸이 제일 소중합니다’라고 답했는가하면, 재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 조선의 결혼 생활은 “자기 희생이라고까지 할 만큼 자기 개성은 꺾여지고” 마는 것이라 비판하며 자신의 희망은 “인간으로 자유스럽고, 그리고 나의 마음껏 예술의 창작으로 정진해 보고 싶을 뿐”이라고 답하는 등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며 다른 어떤 가치나 목적을 위해 자기가 희생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640, 659)

알며, 여자도 될 수 있으면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히 간섭치 않는 것이 예입니다. 이 집 장녀도 이십 세 된 청년인데 사교계든지 접빈하는 태도가 18세 된 아우와 판이하며, 또 양친은 단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의 주장을 당당히 세웁니다.¹⁹⁾(밑줄 강조: 필자)

<...> 제가 넘어지거든 꼭 제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른이 일으켜 주는 것은 버릇도 없어지거나 의뢰심을 기르는 것이외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의뢰심이 많았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의뢰하고 자식은 부모에 의뢰하였으며 여자는 남자에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사람은 이래서는 도저히 아니됩니다. 제것은 제가 하는 독립심을 길러야겠습니다. 어려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싹 나오는 이때부터 독립심을 길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²⁰⁾(밑줄 강조: 필자)

나혜석은 구미여행 중 프랑스 가정을 방문한 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자녀교육 방법을 꼽는다. 성년이 되면 자녀도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표현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보호는 받되 간섭받지 않는 프랑스의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주체적 개인을 강조하던 나혜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육아경험을 토로하는 자리에서도 자녀의 독립심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인 모두가 의뢰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듯 나혜석은 비단 여성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중요한 전제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존재를

19) 나혜석,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296.

20) 나혜석, 『내가 어릴 때 기른 경험』,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267.

강조하였다. ‘육체’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했던 화가로서의 경험과 교육 덕분에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근대성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 나혜석은 이를 토대로 여성문제와 자녀교육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 특유의 근대적 사상을 펼쳐나갔다. 물론 이러한 근대성의 정황들은 당시의 다른 페미니스트들이나 근대적 지식인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지점이다. 나혜석의 삶이 그들과 비교해 좀 더 특별한 이유는 ‘근대적 개인’이라는 이 생소한 개념을 단지 머리로만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Ⅲ. 두 번째 경험: 소유권 개념의 이해와 법률 소송

근대인으로서의 나혜석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녀가 ‘개인’이라는 개념을 자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인식을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이상적 가치와 사상을 관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과 행동의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와 『이혼 고백장』은 나혜석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글이다. 결혼과 스캔들,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던 『이혼 고백장』과 이 이혼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최린과의 스캔들, 그리고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상징하는 것으로 꼽힌다. 상당한 분량의 『이혼 고백장』과 위자료 청구소송 기사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두 사건의 성격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나혜석의 생각이다.

(가)

부내 수송동 46의 15호 여류화가 나혜석 여사는 소완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계동 127번지 최린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만 2천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19일 오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여 동 오후 4시경에 접수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만2천원을 지불하라’는 청구 원인에 대하여 그 원인을 소장을 통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래 자기의 일시적 OO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혹 수단을 써가지고 원고로 하여금 XX의 희생이 되게 하였는데 원고는 남편에게서 이혼되고 사회로부터 배척되어 생활상 비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것이 원인으로 현재 극도의 신경쇠약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혀 고의로 원고의 전부(前夫) 김우영에 대한 처권을 침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인생에 막대한 손해를 받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1만 2천원을 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청구한다.²¹⁾(밑줄 강조:필자)

(나)

“하고 싶으면 합시다. 이러니저러니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없는 허물을 잡아낼 것도 없소. 그러나 이 집은 내가 짓고 그림 판 돈도 들었고 돈버는 데 혼자 벌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전 재산을 반분(半分)합시다.” <…>

“그러나 사람이 되고서 그럴 수가 있소? 생활비 한 푼 아니 주고 이혼이 무어요.”

“2개년 간 별거생활 하자는 서약은 어찌된 모양이야?”

“그것도 제 맘대로 취소한 것이지.”

“그놈, 미쳤군 미쳤어.”

“나는 가서 생활비 청구를 하겠소. 아니 내가 번 것을 찾겠소”²²⁾(밑줄 강조:필자)

21)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상대 제소」, 『동아일보』, 1934.9.20.

22) 나혜석, 『이혼고백장』,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415.

남편의 이혼 요구에 그녀는 분명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자신에게도 치부가 될 수 있는 스캔들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까지 최린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는 그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소유물 혹은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그것들이 침해된 것에 대해 상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권리를 청구한다는 관념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²³⁾이다. 따라서 최린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요구는 나혜석이 ‘소유’와 ‘권리’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최린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살펴보자. 나혜석이 최린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원고로 하여금 XX의 희생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XX’는 ‘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녀는 정조 희생을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조를 분명한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조는 누군가의 신체나 정신의 일부 혹은 신체적·정신적 활동과 관계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소유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자신에게 있고, 그것이 타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되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개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배타성이며, 이는 독립적·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각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²⁴⁾ “내 신체는 나의 것이기에 타인이 임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

23) 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p.29.

24) 로크 개인의 모든 권리는 그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소유는 철저한 배타적 성격을 본질로 함. 내 신체는 나의 것이기에 타인이 임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내 신체를 사용하여 내가 획득한 나의 재산

며 내 신체를 사용하여 내가 획득한 나의 재산도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²⁵⁾는 소유 개념에 관한 로크의 유명한 말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신체를 이용해 획득한 가치나 재화 또한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녀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소설 『경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경희의 일동일정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 그래서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 준다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대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아아, 다행이다. 경희의 넓적 다리에는 살이 찢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의 힘이 없어 늘어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이다. 경희가 가질 물건도 무수하다. 그러므로 낮잠을 한 번 자고 나면 그 시간 자리가 완전히 턱이 난다.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경희는 반드시 조금씩 자라난다. 경희의 갖는 것은 하나씩 늘어간다.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밑줄 강조:필자)²⁶⁾

타인의 힘으로 이룬 성과는 결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경희의 저 단호한 주장은 바꿔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이룬 성과는 “경희

도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 개인성이란 타자와 공유불가능한 자신의 고유성(property)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그린비, 2014, p.213 참조)

25) 같은 곳.

26) 나혜석, 『경희』,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96.

의 갖는 것”, 즉 경희의 소유임을 의미한다.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에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 또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여성들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남성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하는 경우로, 이때 여성들이 요구하는 위자료는 피해보상의 성격이 강했다.²⁷⁾ 이에 반해 나혜석은 엄연히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에 있어 자신이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가족이 사는 집을 짓고 전체 재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인 그림을 판 돈이 포함되었기에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정당하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이다. 이는 단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생계를 책임지라며 생활비를 요구하는 통상의 위자료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다. 말 그대로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한 결과물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 장의 서두에서 근대인으로서의 나혜석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그녀가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공론화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실천적 행동을 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일찍이 미술교육과 근대적 사상의 영향으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육체를 가진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자각했으며, 이를 토대로 소유권 혹은 권리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음은 그녀

27) 『이혼소송제기 위자만원청구』(『동아일보』1930.3.16.), 『학대로 신경쇠약 치료비위탁 청구』(『동아일보』1930.1.11.), 『지방법원에 이혼소송』(『동아일보』1929.2.10.), 『성공하자 변심한 남편에 이혼청구』(『동아일보』1932.10.5.) 등 당시 신문에 실린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기사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남편의 외도와 축첩행위, 학대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였다.

가 쓴 소설 산문 대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해에 불과했다. 서구의 진보적 사상이나 이상적 가치를 논하는 신여성은 비단 나혜석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혜석이 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 ‘소유’, ‘권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근대적 사고가 한 개인의 사적인 사유의 차원에서 머물거나 이론이나 관념으로만 설파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행동’했으며, 사적인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때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녀는 법의 힘을 빌린다. 나혜석을 ‘근대인’으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근대사회에서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잘 활용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K는 책 보는 포즈로 모델이 되고 R은 화로를 끼고 앉아서 그리고 있다.
한 30분 되더니,

K: 아이고 다리야, 사람 살려주.

R: 엄살하면 호소할 데나 있나.

K: 왜요, 호소할 데는 없어도 변호사 델 사람은 있단나요.

R: 그럼 무서워서 고만 쉬어야겠군.²⁸⁾

자전적 이야기를 쓴 『모델』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모델일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찾는 이들의 대화는 분명 낯설어 보인다. 맥락상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대목이긴 하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단순히 엄살 부리며 투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

28) 나혜석, 『모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p.351-352.

제해결 방식이다.

비록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근대법은 분명 당시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일제로부터 이식된 근대법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폭력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일 수밖에 없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²⁹⁾ 그러나 이로 인해 높아진 법의 위상과 중요성 덕분에 식민지 조선에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고, 오직 그것만이 합법적이었으며, 그것에 의해 문명화의 표상이 가능”³⁰⁾할 정도의 존재감을 발휘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개개인의 삶 또한 법의 테두리 속으로 편입되어 법의 구속력을 받게 되었다. ‘근대’ 혹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중심이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법의 위상과 중요성은 당대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 대상이었다.³¹⁾ 나혜석 역시 당시의 이런 시대적 변화에 무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인 김우영도 변호사였고, 스캔들 상대였던 최린도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보성전문 법률학 강사를 한 바 있으며, 최린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를 맡았던 소원규 역시 그녀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또한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작가 염상섭은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한참 궁한 판에는 법률강의록을 펴놓고 보던 한때도 있었다”³²⁾고 털어놓을 만큼 새로운 근대문명인 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 또한 그녀가 근대법의 역할과 위상에 자연스럽

29)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p.487.

30) 이지훈,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2, 2014, p.361.

31) 김정민, 「법에 기반한 근대 사회와 변호사-인물의 탄생」, 『우리말글』 72, 2017, p.286 참조.

32) 염상섭, 「나의 소설과 문학관」, 『백민』, 1948.10, 위의 글, p.285 재인용.

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기대하기보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 호모 주리디쿠스(Homo Juridicus), 즉 ‘법률적 인간’이라 부른다.³³⁾ 서구의 근대사회 발전 과정을 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를 소유하고 지키고자 했던 개인들의 욕망과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권리를 법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이 결국 근대 사회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자각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한 근대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보자면 나혜석 또한 전형적인 호모 주리디쿠스로서의 근대적 주체였다. 개인의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는 법이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합의를 전제로 그녀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 요구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나혜석이 문제해결에 있어 법제도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라는 장치를 활용했다는 것은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들, 가령 여성의 권리나 소유권, 평등의 문제 등을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선 여성들에 해당하는 공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몇몇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문화의 모순과 한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확실한

33) 알랭 쉬피오, 박제성, 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p.6.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만이 이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임을 그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S: 있지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Votes for Women)’를 모자에다 쓰고 단추를 하고 띠를 띠지요 이것이 그때 띠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빛이 다 닳은 띠에 금자로 쓴 것을 보였다.

R: 이것 나 주십시오.

S: 무엇 하실라오.

R: 내가 조선의 여권운동자 시조가 될지 압니까.³⁴⁾

신여성으로 한 사람으로서, 또한 여권운동가로서의 그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남녀평등, 여권신장 등의 요구가 관념이나 이론의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형태로 구현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어느 설문조사에서 “선생은 실행가/학자가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장차 좋은 시기 있으면 여성 운동에 나서려 합니다”라고 답을 한 점도 그녀가 실천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한다.³⁵⁾

근대적 개인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관념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실천적 형태로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그녀가 여성들의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남편 김우영을 따라 안동에서 생활하던 시절 나혜석은 그곳의 조선인 부녀자들을 모아 부인회를 조직하고 여자 야학을 개설하였다.

우리 조선 여자계를 위하여 열심 진력하는 나혜석 여사는 금번 당지 8번통

34) 나혜석, 『영미부인 참정권 운동자 회견기』,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p.479.

35) 『설문 응답』, 『삼천리』, 1930.5.

태성의원 내에 여자 아학을 설립하고 매주 3일간 오후 7시부터 동 10시까지 단독히 열성으로 교편을 집한다 하며, 입학 지원자가 죽인 답지한다더라.³⁶⁾

당시 만주에서 생활하던 모든 조선인들의 삶이 그러했겠지만 특히 여성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했으며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나혜석은 아학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데 주력했다. 이때 뿐 아니라 “규중 처녀들의 숨은 재주를 발휘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여자미술학사’를 창립해 여성들의 미술교육에 힘쓰기도 했다.³⁷⁾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또 다른 실천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신문과 잡지에 자신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나 차별과 같은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선 여성들의 문제이며 공적인 성격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녀가 했던 의미 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즉 불륜이나 이혼과 같은 은밀한 사적 영역을 대중매체라는 공적담론의 영역에서 공론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공적인 것으로 재규정한 것이다.³⁸⁾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에

36) 「안동현여자야학」, 『동아일보』, 1922.3.22.

37) 「화실의 개방-여자미술학사」, 『삼천리』, 1933.3.

38) 남편 김우영에 대한 항변인 동시에 조선 사회와 남성 전체에 대한 비판과 도전의 성격이 강했던 「이혼고백장」은 당시 상당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조차 나혜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당시 『신가정』의 독자투고란에는 나혜석을 향한 비판적인 내용의 공개서한이 실리기까지 했다. “그러한 고백장을 사회에 적나라하게 발표하는 당신의 태도에 반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보기 흉하게 무너지고 만 가정의 내막을 들춰 보일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필요 없는 폭로는 악취미요, 병적이다. 사남매의 어머니로서 그 노출증적 광태를 버렸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등의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고, 나혜석은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않았다. (정규웅, 『나혜석 평전』, 중앙M&B, 2003, p.253-255 참조)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오래되고 견고한 가부장제의 인습과 불평등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바꾸거나 적어도 현재의 상태에서 불평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법이라는 공인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법은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나약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제도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문제해결 역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며 개인의 권리 역시 법의 이름으로 공인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사상의 실천을 나혜석은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요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IV. ‘여성’의 한계를 벗어난 ‘근대인’ 나혜석

나혜석은 식민지 조선에서 분명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1세대 페미니스트이자 최초의 여류서양화가였으며 동시에 문학에서도 적지 않은 활약을 했다. 이런 그녀에 대한 연구 또한 페미니스트, 화가, 작가로서 각각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논하는 이들은 일본유학과 구미여행, 스캔들과 이혼 등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삶과 다양한 글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진보적 사상들을 읽어냈으며, 화가 나혜석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다양한 화풍과 기법으로 그녀의 미술세계를 분석했다. 작가로서의 나혜석을 기억하는 이들은 소설 『경희』를 비롯해 그녀가 쓴 문학작품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을 찾아 나섰다. 특히 페미니스트로서의 나혜석을 논하는 이들은 일본유학과 연애, 구미여행과 스캔들 그리고

이혼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가진 ‘특별함’과 ‘예외성’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들은 물론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이었지만 이것만으로 나혜석을 페미니스트 혹은 근대인이라 규정하고 그녀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나혜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식이 형성된 이후에 발표한 글이나 미술작품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러한 새로운 사상을 인식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나혜석이 페미니스트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유학에서의 미술교육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미술학교에 입학한 나혜석이 페미니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한 마디로 그녀는 삶 전체가 오롯이 근대적 개인으로 자각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미술교육이었다. 서구의 근대 미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육체를 관찰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곧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물질을 지닌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개개인의 신체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전제로 한 소유권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린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과정에서 남편 김우영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었다. 자신의 신체 혹은 정신의 일부인 정조에 소유권 개념을 적용해 그것이 훼손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자신의 신체활동(그림 그리는 일)의 결과로 얻게 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 혹은 권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행동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혜석은 근대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으로써 근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사고와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혜석은 ‘근대적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로부터 비롯된 권리와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에 대해 막연히 관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낯설고 모호한 개념과 가치들을 현실의 법과 제도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다른 페미니스트들 더 나아가 근대적 지식인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두 번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요구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자신이 인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각의 개별적인 신체를 소유한 개인은 그 자체로 이미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당연히 그가 지닌 권리 또한 법으로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나혜석의 사상은 그녀의 정체성을 페미니스트로만 제한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더 이상 그녀를 ‘여성’이나 ‘페미니스트’라는 좁은 범주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인 ‘근대인’ 혹은 ‘근대적 개인’ 등으로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페미니즘이나 여권운동이 단지 여성들‘만’의 권리나 이익을 위한 투쟁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페미니즘이나 여권운동은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혜석에 대한 소수의 부정적 평가나 한계 지적 역시 어찌면 그녀를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만 규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여성의 삶과 권리를 이야기한 만큼이나 부모와 자녀의 동등한 관계, 신분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선의와 양심에 호소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과 제도를 이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 등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남성 지식인들의 행보와도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나혜석을 신여성,

페미니스트, ‘여류’화가, ‘여류’작가 등의 수식어가 아니라 지식과 행동의
합일을 보여준 ‘근대인’, ‘근대적 개인’으로 부를 때 나혜석이라는 한 개인
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2. 단행본 및 학술논문

김경민, 「법에 기반한 근대 사회와 변호사-인물의 탄생」, 『우리말글』 72, 2017, pp.259-289.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윤범모 외,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이지훈,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2, 2014, pp.353-382.

정규웅, 『나혜석 평전』, 중앙M&B, 2003.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그린비, 2014.

주현진, 「이상 문학의 근대성-‘의학-육체-개인’」, 『한국시학연구』 23, 2008, pp.377-417.

Alain Supiot, Homo juridicus, WWNorton&CoInc, 2007.(박제성, 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Nickel, James W.,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Blackwell Pub, 2007.(조국 옮김,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Abstract

Modernist Rha Hye-seok's Experience and Ideology

Kim Kyung-min

Rha Hye-seok became understand as the concept of 'body' by the experience as a painter and the western modern art education. Based on these, she realized the new concept of an 'individual' as an independent and subjective being. She understood the new modern ideology abstractly, as well as made her actualized by it through her practical behavior. She realized with her concept of a new ideology that it not only applied to the body itself, but also was the right concept for the property achieved by the body belong to the individual. Based on these perceptions, she claimed legal ownership about her body and property. The first example was when she started an action suing Choi-rin, who was the scandal partner for compensation on the violation of chastity. The other example was requiring her husband for the division of the assets during the procedure of their divorce. Instead of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divorce or her scandal privately, she wanted her right to be authorized through the legal way. Recognizing her own legal right and requiring it with justice are the reasons which define her as a modernist. She understood the new ideology such as the modern individual, and the right given to them and actualized her perspective through the use of personal and practical action. Her whole life shows the improvement toward the modern individual being.

Key Word : Rha Hye-seok, Modern Individual, Arts Education, Lawsuit,
Homo Juridicus

김경민

소속 :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교수

전자우편 : redwine61@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01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